쇠고기 협상 450만명이 지켜본다

노 영 한
(본회 전무이사)

축산물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당초 100만명의 목표를 훨씬 넘어 450만명으로 막을 내렸다. 1개월간의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6월 11일 한미간 쇠고기수입에 대한 협상이 농림수산부 회의실에서 있었는데, 이 날은 축산단체들이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농성까지 하여 모처럼 축산업계의 단합된 힘으로 협상팀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금년중으로는 협상이 어느 형태로든 타결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따라 우리나라 축산업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요즈음은 핵가족시대라 아이들이 할머니와 한 집에서 자라는 경우가 드물고, 부모들도 바쁜 도시생활에, TV때문에 대화시간이 없지만, 옛날에는 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손주들이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할머니의 이야기 소재가 그리 많지도 않았지만 손주들도 들은 얘기를 또 듣고 몇 번씩 반복해서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옛날얘기를 해달라고 조를 때는 아예 무슨 얘기를 해달라고 지정까지 하게 된다. 우리 조상들은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반복 교육을 철저히 시킨 것이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가운데 팥죽 할머니 이야기가 있다.

어린애들을 집에 두고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단단히 교육을 시키고 팥죽장사를 나간다.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난다.

처음에는 팥죽 한 그릇 주면 안잡아 먹지 하고 약속을 하지만, 다음 고개에서 팔 하나를 떼어먹고, 다음 고개, 또 한고개를 넘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잡아 먹는다. 그리고도 아이들이 있는 집까지 찾아와 처음에는 엄마가 왔다고 속인다. 끝내는 아이들은 버티지 못하고 뒷문으로 도망가 하늘의 도움으로 줄을 타고 올라가고 욕심많은 호랑이는 하늘까지도 쫓아가려고 하나 썩은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 줄이 끊어져 떨어져 죽는다.

강대국들이 시장개방 압력을 넣을 때도 처음에는 최소시장 접근방식이니 하며 3%만 수입하면 안잡아 먹지 또는 1만t만 수입하면 안잡아 먹지 하다가 한 고개 또 한 고개 넘으면서 왕창 먹혀버리고 만다.

우리의 할머니들이 쇠고기 협상에 조심하라고 벌써 옛날에 우리를 교육한 지도 모른다. 금년 말까지는 쇠고기 협상의 한 고개를 넘어야 한다. 벌써 우리 몸의 60%가 먹혔는데 남은 몸으로는

> 우리의 할머니들은
> 벌써 옛날에 팥죽할머니 이야기를 통해 쇠고기
> 협상에 조심하라고 우리를 교육한지 모른다. 벌써 우리 몸의 60%를
> 먹혔지만 집에 두고온 자식들, 즉 우리의 후손이
>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쇠고기 협상에
> 임해야 할 것이다.

사람구실을 하겠는가 하고 포기할 수도 있으나, 집에 두고온 자식들, 곧 우리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말릴 수도 없다.

97년에는 문을 잠그지 말고 활짝 열어 놓고 기다리라고 한다. 왕창 먹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지만,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호랑이가 망하는 해피앤딩으로 끝난다.

서양에서는 낙타란 놈이 추운 겨울 천막 안에서 자는 주인을 처음에는 코, 다음은 앞발, 다음은 몸통, 뒷다리까지 들어온 후에는 주인을 천막에서 내쫓고, 낙타가 집주인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난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끝장이라는 교육으로 서양인들의 협상은 끈질기고 동양인과 달리 끝까지 버티는 것이 특징이다.

왜 서양에서는 낙타를, 우리 할머니들은 호랑이를 대상으로 삼았는지 알 수가 없다. 성경은 (이사야)호랑이, 토끼, 사슴이 함께 공존공생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호랑이가 자제를 해야 한다.

이제 공해 때문에 서울에서는 밤하늘에 별을 보기도 힘들고, 핵가족화로 팥죽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줄 할머니도 없으며, 고속도로와 아스팔트길이 있을 뿐, 한 고개 한 고개를 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우리 아이들은 모르고 자란다.

전인구의 70.6%가 전후세대로 능률과 효율만을 지고의 가치기준으로 생각하고, 식성부터 국제화 되어 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축산업의 방향도 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450만명의 국민이 축산물 수입 개방을 막아 내는데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방법에서는 많은 이견이 있으며, 특히 이미 60%의 시장을 점유하는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재점검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미 소비자들은 국내산 축산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수입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매일 직면하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생산하면 팔린다는 생각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축산물의 품질과 가격이 어느 선인가를 과학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 후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의 축산물을 원하는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 후 국제경쟁력이 있는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양축농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생업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각종 규제, 예를 들면 분뇨처리, 무허가 건물, 각종등록·허가의 까다로운 규정 등도 강화일변도에서 전양축농가의 범법자화를 막기 위해서도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육류의 상징이고 대표격인 쇠고기 협상이 양축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결정되기 위해서 이번 서명운동은 시작이요, 출발점인 것이다.